

KIEP 한중경제 포럼

KIEP Korea-China Economic Forum

제04-06 / 2004년 6월 22일

중국 FTA 정책의 기본 방향과 향후 전망

쉬장원 (徐長文)

中國 商務部 國際貿易經濟合作研究院 主任

I. 발표요지

1. 중국의 FTA 추진 목적

- 중국정부는 자국의 안정적인 경제건설을 위해서 주변국들과 우호적인 파트너쉽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 이는 쌍무적인 경제협력 및 무역을 확대하고, 민족주의와 분열주의를 반대하며, 역내 및 전세계의 평화유지를 추구하는 중국의 외교 전략으로부터 출발한 것임.
- 2020년까지 전면적인 소강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중국은 다자간 무역자유화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면서, 지역협력체, 즉 지역자유무역(FTA) 건설에 적극 참여 계획

* KIEP 북경사무소에서는 중국경제 현안과 주요 경제정책 방향을 심층 파악하고, 정책 입안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중국 관리 및 학자들과의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한중경제포럼>을 운영, 매월 정기 세미나와 수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중국측에서는 유관부처의 고위관리 및 전문가가 주제발표자로 참석하며, 한국측에서는 주중 한국대사관 경제부문 인사, 한국경제단체 및 기업 대표들이 토론자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중국정부의 정책은 해당 지역·세계경제의 번영과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임.

□ 현재 NAFTA, EU를 위시하여 전세계적으로 지역무역협력체제 구축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경제성장이 빠른 세계 3대 주요지역의 지역무역협력 상황은 다음과 같음.

- EU는 지난 5월 1일 기존 15개 회원국 이외에 10개 동유럽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함으로써 총 25개 회원국으로 확대
- 북미지역을 중심으로 구축된 NAFTA도 남미지역으로 확장을 도모하고 있어 2005년까지 34개 회원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 반면 가장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는 동아시아지역은 아직까지 지역 전체를 포괄하는 경제협력체가 존재하지 않고 있어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으며, 비교적 중대한 경제적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음.
- 이러한 위험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준 사례가 1997년 동아시아지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에 따른 막대한 손실임.

□ 143개 WTO 회원국과 비교할 때, FTA 참여국의 수는 188개국으로 크게 증가한 상태임.

- 이처럼 FTA의 급증은 보편적인 원칙으로 인해 의견대립 및 국가간 갈등이 존재하고 있는 WTO의 체제적 문제점에서 찾을 수 있음. 즉 FTA는 이러한 WTO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것임.
- 그러나, 동아시아지역의 FTA 추진은 10+1, 10+3 등과 같이 부분적인 협력이 존재할 뿐이며, 전반적으로 큰 진전이 없는 상태임.

- 동아시아지역에도 EU와 같은 협력메커니즘이 존재하였다면, 1997년 금융위기와 같은 경제적 위기에도 커다란 피해는 야기하지 않았을 것임.
- 1997년 금융위기가 단기 유동성자금의 부족에 따른 것이지만, 만약 전세계의 50%에 육박하는 외환보유고를 보유하고 있는 동아시아지역에서 지역협력체가 존재하였다면 이러한 문제점들은 최소화되었을 것임.
- 따라서 중국정부는 지역협력을 통해 각종 문제점을 보완하고 안정적이고 건전한 경제성장을 지속적으로 추구할 것임.

2. FTA에 대한 기본 입장

- 중국정부는 기본적으로 WTO 협정에 의거하여 상호주의에 입각한 FTA의 추진을 희망하고 있음.
- 중국은 GATT/WTO 협정에 의거하여 개방적이고 배타적이지 않은 지역경제협력체를 설립하는 동시에 상호 이익이 되는 ‘윈-윈(win-win)’ 형태 실현 목표
 - 이것은 자국의 이익만 내세울 경우, 상호간 협력이 어렵기 때문임.
- 전세계적으로 FTA 추진사례를 살펴볼 때, 대국(大國)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음.
 - EU내에서의 獨·佛, NAFTA내에서의 미국의 역할이 중대함을 감안하면, 한·중·일 등 동북아 3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
- 2010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중-ASEAN FTA에 대해서 일본은 동아시아지역에서 중국이 패권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우려하고 있으나 이는 잘못된 생각임.

- 일국(一國)이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힘의 우위와 함께 충분한 자금, 우수한 기술력, 정보수집역량 등이 있어야 하나, 현재의 중국은 그러하지 못하며 패권주의를 희망하지도 않음.
- 최근 일본신문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패권주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중국은 그렇지 않은데 오히려 일본에게 패권주의 욕망이 있는 것은 아닌지’ 반문한 바 있음.
- 이와 같은 근거 없는 주장들이 중-일 FTA 건설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할 것임.

□ 중국은 동아시아지역에서의 FTA 건설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임.

- 기존의 FTA 사례에서 볼 때, 주변국 또는 주변지역과의 FTA는 정치·경제·문화적으로 매우 뚜렷한 효과를 시현해왔으며 지역적인 비교우위를 제고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음.
- 경제협력 강화, 인적교류 증가, 다양한 의견 교환 등이 이루어져 상호간의 이해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일부 민감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다소 쉽게 의견 일치를 볼 수 있음.

3. FTA 추진 현황

(1) 방콕협정

- 방콕협정은 한국,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라오스 등 5개국에 의해 1975년에 설립된 것으로, 동 협정의 주요 목표는 상호간 관세 및 비관세 양허를 제공하여 무역을 확대하고 회원국의 경제발전을 촉진하는데 있음.
- 중국은 2000년 4월 방콕협정의 회원국이 되었는데, 이는 실질적인 특혜조치

가 있는 지역무역협정에 중국이 가입한 최초의 사례임.

(2) 중-ASEAN FTA

□ 2000년 1월 개최된 중-ASEAN 정상회의에서 양측 지도자는 중-ASEAN¹⁾ FTA 체결을 위한 관련 연구를 추진하기로 합의함.

— 8개월간에 걸친 조사·연구를 통해 작성된 최종보고서는 양자간 FTA 추진이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윈-윈’효과가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FTA 추진에 따른 GDP 증가율은 ASEAN이 0.9%(54억 달러) 증가하고 중국은 0.3%(22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상호간 수출증가율에 있어서도 중국의 對ASEAN 수출이 48% 증가(130억 달러)하고 ASEAN의 對중국 수출은 55.1% 증가(106억 달러)할 것으로 전망됨.

□ 추진 배경

— 중국은 장기간에 걸쳐 ASEAN과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해왔고 양자간 경제·무역관계도 더욱 밀접해지고 있으며, 수많은 화교들이 ASEAN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음.

○ 지난 2000년부터 양자간 교역량은 더욱 확대되어, 2003년 양자간 무역규모는 전년대비 42.8% 증가한 782.5억 달러를 기록

○ 최근 4년(2000~2003) 동안 양자간 무역은 연평균 31.5% 증가했으며, 금

1) 1993년 1월 출범한 AFTA는 오는 2015년까지 역내 무관세화를 완성할 계획인바, 2010년 1월 1일까지 기존 6개국(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브루나이)이 먼저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고 2015년까지 4개 신규회원국(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이 무역자유화를 실현할 예정임.

년 1~5월 무역규모는 27.2% 증가한 641억 달러를 기록

- 또한, 2003년까지 ASEAN의 對中 투자건수는 21,895건을 기록하였고, 투자액에서도 계약기준 643억 달러, 도착기준 323억 달러를 기록
 - 중국의 對ASEAN 투자도 최근 들어 급속히 증가하여, 2003년 6월까지 투자건수 832건, 계약기준 투자규모 13.7억 달러(도착기준 8.7억 달러)를 기록함.
- 한편, 중국에게 있어서 ASEAN은 건설공사 수주와 노동인력 진출(勞務合作)의 중요한 시장이기도 함.
 - 2003년 말까지 중국계 회사들은 ASEAN 지역에서 28,962건의 건설공사를 담당하여 249.4억 달러의 계약규모(실제 영업규모 178.5억 달러)를 기록함.

□ 추진 경과 및 향후 일정

- 2002년 11월, 기본합의문을 체결하였으며 2003년 7월부터 효력이 발생함.
- 2003년 10월 1일, 중국과 태국은 188개 과일·채소류(채소 108개, 과일 80개)에 대한 관세철폐를 조기에 실시함.
 - 600여 품목에 대해서는 2006년 1월 1일부터 관세철폐를 목표로 2004년 1월 1일부터 관세율을 인하
- 2004년 6월말 기준으로 상품교역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하고 2005년 1월 1일 농산물을 제외한 품목들에 대한 관세 인하를 단행함으로써 중-ASEAN FTA를 본격 추진 목표

- 이후 2010년에는 중국과 ASEAN 6개국(기존 회원국)간에 관세철폐를 단행하고 2015년부터는 모든 ASEAN 회원국들과 관세철폐 목표

□ 최종 목표

- 상품교역에서는 점진적인 관세인하, 비관세장벽 및 수입쿼터 철폐를 통해 궁극적으로 완전한 관세 및 수입쿼터 철폐를 이룩
- 서비스무역에서는 점진적으로 주요 서비스분야에 대한 시장진출 제한을 완화하고 그 조건을 개선하여 양자간 서비스시장의 통합을 실현
- 투자부문에서는 양자간 투자장벽의 철폐와 투자자 보호수준 제고를 통해 양호한 투자환경을 마련

□ ASEAN은 농업위주의 산업구조, 공업발전수준의 유사성 등의 요인으로 중국과 주요산업부문에서 경쟁관계에 있으며, 해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FTA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매우 큰 협력부문이 존재하고 있음.

- ASEAN은 열대농업 위주인 반면 중국은 寒帶농업 위주이기 때문에 식량, 채소, 과일의 품종이 서로 달라 상호간 협력이 가능
 - 또한, 양국간 무역의 70%가 공산품이고 무역규모도 급속히 확대되고 있음을 놓고 볼 때, 양국간 상호보완성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 투자유치 측면에서도 전세계 외국인직접투자의 80%가 선진국에 대한 투자이고 개도국, 특히 동아시아지역의 개도국에 대한 투자가 매우 적어 투자유치 경쟁은 주로 선진국간의 경쟁이라고 볼 수 있음.
 - 최근의 외국인투자 흐름을 보면 대부분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경제발전속도

가 빠르고 투자이익이 높은 국가로 흘러가고 있어 일부 동아시아국가에 대한 외국인투자 감소는 사회 불안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

- 또한, 對中투자의 상당부분이 해외교포 및 화교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중국에 투자하지 않을 경우에도 동아시아국가로 흘러가지는 않을 것임.
- 중국은 2004년부터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에 대해 관세상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베트남에 대해서는 WTO 회원국들에 상응하는 조치를 부여함.
- 농업, 정보통신, 인적자원개발, 투자, 메콩강지역 개발 등과 관련하여 협력하고 정치·외교적인 신뢰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양자간 경제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함.
- 특히 ASEAN과 인접한 운남성, 광서성, 광둥성 등은 지리적 특성을 활용

□ 중-ASEAN FTA에 따른 영향

- ASEAN과의 FTA 추진을 위해 한국, 일본, 인도 등도 협상 개시
- 중-ASEAN FTA는 18억 명 규모의 거대 소비시장, GDP 2조 달러, 무역규모 1조 3,000억 달러를 조성할 것으로 예상
- 이는 개도국 중심의 FTA 중에서 가장 큰 규모가 될 것이며, 전 세계 인구의 30%, 외환보유고의 40%, GDP 및 무역시장의 10% 등을 차지할 것임.
- FTA로 인해 열대과일, 채소, 목재, 종려기름, 수산물, 해산물, 석유, 천연가스 등의 부문에서 ASEAN의 對중국수출이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
- 중국에게 있어서는 개혁·개방을 더욱 촉진하고 서부 및 동북개발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중국기업의 수출시장 개척과 함께 전방위적인 대외협력

을 위한 기초가 될 것임.

(3) 남아시아지역과의 경제협력

□ 중국과 인도는 지난 2003년 6월 인도총리의 중국 방문시 양국간 FTA를 제기한 바 있음.

－ 양국간 무역규모는 1997년 18억 달러에서 2003년 76억 달러로 성장함.

□ 파키스탄도 중국과의 FTA 추진을 희망하고 있으며,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전개하고 있음.

－ 양국간 무역규모는 1997년 10.7억 달러에서 2003년 24억 달러로 증가함.

(4) 뉴질랜드 및 호주와의 FTA 논의

□ 중국과 뉴질랜드는 2004년 1월 FTA 추진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고, 2004년 6월 중순 FTA 추진에 합의함으로써 2005년부터 정부간 협상을 시작할 것임.

－ 2003년 양국간 무역규모는 전년대비 30.5% 증가한 18.3억 달러를 기록함으로써 중국의 對오세아니아 무역량에서 11.5%를 차지

□ 호주 총리는 2003년 중국 방문시 중국과의 FTA 추진을 제안하였으며, 현재 양국은 FTA 추진을 위한 공동연구에 합의

－ 호주는 중국의 제10위 무역상대국으로서 2003년 양국간 무역규모는 135.6억 달러를 기록

○ 또한, 호주는 제11위의 對中 투자국으로서, 2003년 호주의 對中 투자건수

는 3,847건, 실제 투자액은 34.9억 달러에 달함.

(5) 남아프리카공화국과의 FTA

□ 남아프리카공화국도 중국에 대해 FTA 추진을 제안하였는바, 현재 양국간 연구가 진행 중임.

- 양국간 무역규모는 2002년 25.8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금년 상반기 들어 17억 달러를 기록함으로써 2004년 무역규모는 30억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됨.

(6) 상해협력기구(上海合作組織; SCO) 회원국과의 경제협력

□ 중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은 2003년 9월 23일 개최된 정상회의에서 지역내 반테러 구축에 대한 합의와 함께 경제·무역협력강화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상호간의 경제발전 추진을 위한 노력을 시작함.

- 최근 우즈베키스탄에서 개최된 정상회의에서는 구체적인 추진 절차를 통해 현대적인 경제·무역협력방식을 도입함으로써 회원국간의 무역증가를 가져오고 법률 개정을 통해 상품, 자본, 서비스 및 기술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한 양호한 조건을 마련하기로 함.
- 동 기구의 장기적인 목표도 경제통합에 있는바, 2003년 무역규모 157.6억 달러를 기록함으로써 전년대비 32.1% 증가한 중·러시아 경제관계도 SCO를 통한 경제협력과 결합될 경우 더욱 큰 효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회원국들의 경제가 각각의 특징과 자원상의 비교우위를 지니고 있어 상호간 분업을 위한 기초를 마련해줄 것이며, 회원국간의 경제적인 격차도 크지 않아 관세동맹을 위해 유리한 상태임.

- 동시에 회원국 모두가 지리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고 중국도 서부·동북개발 전략을 실시하고 있어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음.

(7) 홍콩 및 마카오와의 경제협력

□ 중국과 홍콩·마카오는 이미 경제·무역관계 긴밀화협정(CEPA)을 체결하였는 바, 2004년부터 273개 품목에 대해 무관세를 실시하고 그 밖의 품목에 대해서도 오는 2006년까지 무관세를 실시할 예정임.

- 이는 하나의 강력한 무관세지대가 아시아지역에서 형성되고 있음을 의미함.

(8) 싱가포르·태국도 중국과의 개별적인 FTA 추진을 위한 의향을 가지고 있음.

4. 한·중·일 FTA 추진

(1) 상호간 경제·무역관계

□ 중·일 무역규모는 2003년 1,335억 달러를 기록함으로써 지난 30년 동안 100배정도 증가함.

- 특히 일본의 다수 무역상대국들에 대한 수출이 최근 들어 감소한 것에 비해 對중국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3년에는 31.1%의 증가율을 기록함.

- 일본은 지난 11년 동안 중국의 제1위 무역상대국이었으며, 지난해부터 실현되고 있는 일본경제의 뚜렷한 회복세도 對中 수출증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

- 일본의 對중국 ODA 규모는 2조 엔(円) 정도이며 200여개 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써 중국의 경제적 기초 마련, 경제발전, 인민생활수준 향상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중국 정부와 주민들은 평가하고 있음.

- 반면에 중국기업의 對日 직접투자도 활발해지고 있는데, 하이얼(海爾) 등 중국의 대표적인 기업들의 對日 진출이 이미 시작된 상태이며 2002년 한 해 동안 19개 프로젝트에 1억 달러 정도를 투자하였음.
 - 향후 일본내 투자환경 개선과 對中 외자유치 강화에 따라 중국의 중·대형 민영기업과 합자기업들이 일본에 진출할 것으로 보임.
 - 인수·합병을 통한 중국기업의 對日 투자도 다소 증가하였는바, 1997~2003년 기간동안 기록한 18건의 인수·합병 중 13건이 2000년 이후 발생
- 한·중 무역규모는 2003년 632억 달러를 기록함으로써 지난 10년 동안 10배 이상 증가함.
- 한국의 對中 투자는 투자건수 27,128건, 실행기준 투자액 197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최근 들어 중국기업들의 對韓 투자도 다소 증가하고 있음.
 - 중국기업들의 對韓 투자규모는 2003년 말까지 투자건수 3,000건, 투자액 4억 달러 정도를 보이고 있음.
- 양국간 인적 교류도 크게 증가하여 2002년 한 해 동안 중국방문 한국인규모 연인원 172만 명, 한국방문 중국인 규모 연인원 54만 명을 기록함.

(2) FTA 체결에 따른 영향

- 한·중·일 FTA는 각각의 경제성장 촉진과 함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줌으로써 3국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윈-윈’ 전략이 될 것임.
- 3국간 FTA 및 양국간 FTA와 관련한 연구 또는 협상이 지난 6년 동안 지속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커다란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것은 3국 모두가 FTA 체결이후의 부정적인 영향을 걱정하고 있기 때문임.

- 한·일 FTA와 관련하여 한국은 對日 무역적자를 우려하고 있는바, 2002년 130억 달러를 기록했던 한국의 對日 무역적자가 FTA 체결로 인해 관세인하가 단행될 경우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일본 고이즈미 수상의 계속되는 신사 참배도 한·일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임.
 - 일본의 경우, 한국산 농산물 수입 급증에 따른 충격을 우려하고 있음.
- 중·일 FTA와 관련하여 중국은 일본산 중화학공업제품과 하이테크제품의 수입급증을 우려하고 있음.
 - 현재 중·일 무역규모는 1,335.7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는데, 일본보다 높은 관세장벽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무역적자가 147억 달러(수출 594.2억 달러, 수입 741.5억 달러)에 달해 FTA를 체결한다면 중국의 무역적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일본은 중국산 방직제품 및 농산물의 수입 증가를 우려하고 있음.
- 한·중 FTA의 경우, 한국은 중국산 농산물의 수입 급증을, 중국은 한국산 중화학공업제품의 수입 급증을 우려하고 있음.
 - 현재 632.3억 달러(수출 200.96억 달러, 수입 431.34억 달러)에 달하는 양국간 무역에서 중국은 230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양국간 관세수준은 차이가 크지 않은 상태임.
 - 한·중 FTA는 양국의 경제·무역 발전에 유리할 것으로 전망됨.

(3) 한·중·일 FTA 추진에 따른 부정적 영향의 해결 방안

- 한국은 중국산 농산물의 수입 급증을, 일본은 한국과 중국산 농산물의 수입 급증을 우려하고 있으나, 현재 농산물이 전체 무역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를 넘지 않고 있어 산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생각됨.
- 최근 중국에서는 녹색식품과 건강식품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관련부문의 농업 기술력이 뛰어난 한국·일본의 중국시장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은 한국과 일본산 중화학공업제품의 수입 급증을 우려하고 있으나, 한·일 이외에 EU산 중화학공업제품도 이미 많이 수입되고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보임.
- 자동차 부문에도 한국과 일본의 다수 기업들이 이미 진출하였으나, 커다란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음.
- 일본은 중국내 자동차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중국내 생산을 통한 가격 인하 전략과 함께 자국으로의 역수출도 생각할 수 있음.
- 현재로서는 무역량 및 인적 교류 확대에 따른 향후 변화 가능성에 대해 단정 지을 수 없는 상황임.
- 한·중·일 FTA는 다년간의 연구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한 상태이며, 오히려 한·일 FTA가 최근 들어 급진전되고 있음.
- 그러나, 한·일 FTA 추진에 있어서는 일본의 한국산 농산물 수입 급증에 대한 우려, 한국의 對日 무역적자(무역불균형) 등의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어 다소 어려움이 예상됨.
- 중·일 FTA의 경우, 일본이 1999년말 중국에 대해 FTA 추진을 제안했으나 중국의 WTO 가입이 우선 목표였기 때문에 당시에는 성사되지 못했고, 2002년 중국의 FTA 제안에 대해서는 일본이 난색을 표명해 이루어지지 못

한 상태임.

- 한·중 FTA와 관련한 여러 가지 우려, 특히 2002년 135억 달러에서 2003년 230억 달러로 증가한 중국의 對韓 무역적자에도 불구하고 FTA 추진으로 인해 중국의 對韓 수출은 더욱 급증할 것이라고 생각됨.

□ 한·중 및 중·일 무역은 각각 연평균증가율 20.7%와 19.6%를 기록하고 있으며, 지난 5월에는 한·중 48%, 중·일 27%의 무역증가율을 기록함.

-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한·중·일 FTA의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II. 토론 요지

問 : 동북아지역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FTA 형태는 한·중·일 3국이 모두 참여하는 FTA라고 생각하나, 이의 출범은 많은 어려움이 예상됨. 따라서, 한·중, 한·일, 중·일 등 양자간 FTA를 통해 궁극적으로 한·중·일 FTA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또한, 발표자는 한·일 FTA가 협상단계와 협정체결이후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현재 한·중 FTA 추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한국정부에게 한·중 FTA 추진을 위한 조건을 제시한다면...?

답 : 현재 동북아지역내 FTA 추진과 관련하여 양자간 및 3국간 FTA에 대해 장기간에 걸친 연구를 거듭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추진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FTA 연구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바, 이는 관련국들의 이해를 도모하고 향후 추진의 당위성을 찾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임. 특히 한·중·일 3국간 FTA는 3국 모두에게 이익을 줌으로써 향후 관련국들의 경제발전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임.

중국은 한·일 FTA 추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바, 그 이유는 향후 동북아경제협력을 위해 모델이 될 만한 FTA의 필요성과 함께 한·일 FTA로 인해 지역간 경제협력이 급진전되어 경제협력이 확대되고 그 수준

도 한층 강화될 것이기 때문임. 한편, 일본은 중-일 FTA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향후 FTA 건설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을 것임.

한-중 FTA 추진을 위한 여건은 어느 정도 성숙되었다고 생각하는바, 이제부터는 정치 지도자들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FTA 체결을 위한 하나의 기본적 원칙은 자국 이익에 대한 지나친 집착을 버리고 상호의 이익을 도모하는데 있음. 궁극적으로는 동북아지역의 경제협력이 제1과제인바, 이는 한-중 FTA에 비해 보다 큰 이익을 가져다줄 것으로 생각됨.

問 : 중국정부는 여타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추진함에 있어서 단순한 경제협력 차원을 넘어서 역내 국가간 금융협력까지 포괄적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또한, 중-ASEAN FTA는 금융협력부문까지 포함하고 있는가?

答 : 지역경제협력이 금융위기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함. 1997년 아시아금융위기는 전세계적 차원의 금융문제였기 때문에 지역경제협력을 통한 해결이 불가능했을지 모르나, 만일 보다 활성화된 지역경제협력이 존재하였다면 금융위기의 충격을 다소 완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것임. 실제로 동아시아국가들은 상호간 금융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미 화폐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임. 한편, 현재의 FTA는 과거와 달리 무역외에 투자, 지적재산권, 무역원활화, 투자원활화 등을 포괄하고 있음. 이처럼 투자원활화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은행의 설치 및 금융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問 : 한-중 FTA와 관련하여 한국과 중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언급하였는데, 이는 중국 상무부내의 구체적인 연구에서 비롯된 것인가? 현재 중국정부는 한·중, 중·일, 한·중·일 FTA 중 어느 쪽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가? 또한, 발표자는 경제적 이익,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해볼 때, 한-중 FTA와 중·일 FTA 중 어느 쪽이 먼저 체결될 것으로 생각하는가?

答 : 한-중 FTA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한국과의 공동연구가 없었기 때문에 보다 심층적인 연구는 없었음. 오히려 공동연구를 진행

해온 일본과의 FTA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한 상태임. 따라서, 앞으로 한국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보다 깊이 있는 연구를 추진할 생각임.

중국정부는 현재 주변국들과의 우호적인 경제적 환경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임. 한·중·일은 상호간 경제·무역규모도 크고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FTA 추진에 있어서 매우 유리한 조건을 지니고 있음.

한·중·일 FTA에 앞서 한·중, 한·일, 중·일 등 양국간 FTA가 선행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됨. 최근에 아주 빠른 속도로 체결된 중·뉴질랜드 FTA을 놓고 볼 때, 정치 지도자들의 과감한 결단, 외교관들의 적극적인 노력, 연구자들의 깊이 있는 연구·분석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함.

問 : 지역무역협정(FTA)은 WTO 체제와 달리 추진 주체가 몇몇 국가 혹은 지역이라는 차이점이 있음. 따라서 협상국가간의 신뢰가 중요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 외에 정치적·외교적 요소가 크게 작용함. 그리고 공동연구도 중요하지만, 정부간 실제적인 협상이 매우 중요함. 이러한 점들을 놓고 볼 때, 한-중 FTA를 중국정부가 먼저 제안할 계획은 없는가? 만일 있다면 대략 언제쯤 제안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답 : 하나의 FTA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연구 → 정부간 협상 → 관세인하 → 관세철폐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함. 이러한 이유 때문에 중-ASEAN FTA 추진을 위한 기간을 10년이라는 장기간으로 설정하였음. 현재 중국정부 내에서 FTA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는 상무부인데, 상무부는 현재 다수 국가들과의 FTA를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국가와의 FTA 추진을 주도적으로 제안할 만한 여유가 없음. 최근에 체결된 중-뉴질랜드 FTA도 뉴질랜드의 주도적인 추진으로 인해 결론에 매우 빠르게 도달할 수 있었음. 한국과 중국은 지리적으로 매우 인접해 있어 중국도 한-중 FTA를 희망하고 있으나 이미 진행 중인 여타국들과의 FTA 추진으로 인해 중국이 먼저 제안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됨.(***)